

장마당 통제 위해 중국 공산품 수입, 평양으로 직송

-평양 장마당에서 중국 공산품 팔지 못하도록 지시

2008년 10월~11월 북-중 사이의 무역이 경색되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시 식품 류 수입은 100% 통제되었고 공산품에 대하여서는 거의 국가 전략물자에 한하여 수입허가를 하였다.

12월부터 무역 통제가 점차 완화되었다. 식품 류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지만 공산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은 대량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새로운 시장 통제 조치들이 부과되었다. 하나는 평양을 시범 지역으로 하여 중국 공산품을 못 팔게 한 것이다. 또한 단동에서 들어오는 중국 공산품들을 신의주가 아니라 평양으로 직송하도록 하게 했다. 평양에는 서포역이라는 화물차 역이 있다. 단동에서 오는 중국 수입품들이 신의주에서 하역하지 않고 이 역으로 직송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하루 한 번 이하로 운행되던 단동-평양 간 화물 철도가 최근에는 하루에 두 번씩 다닌 적도 있다고 한다.

평양의 장마당(민간 시장)에서 중국 공산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중국 수입품을 평양으로 직송하게 한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북한 중앙 당국이 중국 공산품 판매를 국영 상점을 통해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태까지 신의주는 중국 상품이 북한 전역으로 배급되는 유통 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북한 중앙 당국의 경제 통제권이 점점 약화되었다. 때문에 공산품 유통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일단 공산품을 평양으로 직송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09년부터는 상설 시장을 10일장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농산품만 거래하며 공산품은 국영 상점에서만 판매하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도 여느 다른 시장 통제 조치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새해 들어 평양의 장마당에서는 여전히 중국 공산품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